



동서중국브리프

중국공산당 제 19기 5중전회에 대한 관찰

중국공산당 제19기 5중대회 결과에 대한 초보적 관찰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소

1. 개요

- 2020.10.26.-29간 베이징 西京賓館에서 개최
 - 중앙위원 198명과 후보위원 166명 참가
 - “제14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건의”에 대한 심의 통과
- 이번 5중대회도 전례에 따라 지난 5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2021-2025년 간의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심의
 - 특히 이번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도 포함
- 이번 5중대회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압박과 코로나 19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향후 중국 경제사회정책의 방향과 더불어 시진핑 권력의 변동 가능성과 후계 구도와 관련된 움직임 여부에 대해 세인의 관심
- 이번 5중대회에서 결정된 14차 5개년계획의 보다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출간될 자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
 - 2015년에는 13차 5개년계획에 대한 보도독본(補導讀本)이라는 책자 발간

2. 5중대회 발표문(公報)의 주요 내용

가. 지난 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복잡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특히 코로나 19가 가져온 엄중한 충격 등으로 국내 개혁과 발전에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을 당 중앙의 핵심으로 모두가 단결하여 분투한 결과, 각종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여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더욱 힘 있게 전진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
- 특히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하나의 백 년 목표로서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결정적인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을 높이 평가
 -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종합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고,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경제구조가 지속 개선
 - GDP 100조 위안 돌파, 농촌 5,575만 빈곤층의 탈빈 성공, 연간 식량 생산이 안정적으로 5년 연속 1조 3천억 근 이상, 도시 취업인구가 6천만 명 새롭게 증가, 기본 의료보험에 의해 13억 인구가 혜택 등
 - 이외에도 생태환경의 현저한 개선, 대외개방의 지속적 확대, 국방과 군대 건설 수준의 대폭 향상, 국가안보의 전면적인 강화 및 사회의 조화와 안정 유지를 이루었다고 언급
 - 다만, 5중대회 공보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이 눈앞에 있다’고 표현한 것은, 아직 2020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가능
- 아울러 이러한 성과가 향후 최종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견실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기술

나.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이라는 목표로 2035년까지의 국내외 정세전망과 주요정책 방향

-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 중국의 발전환경에 있어서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를 맞고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
 - 이러한 큰 변화는 지난 100년간 없었던 것이며,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의 변혁이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고, 국제적 역량의 상대적 관계가 크게 조정되고 있지만,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시대의 주제로서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에 대한 공감이가 확대

- 동시에 국제환경이 계속 복잡해지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도 명확하게 증가
- 중국 내부의 취약한 부분을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당의 영도 하에 제반 모순과 도전을 극복하자고 언급
 - 중국의 강점으로는 제도 측면에서의 우세, 경제의 장기적 발전으로 물질적 기초 튼튼, 인력 자원 풍부, 시장공간 광활, 사회적 안정
 - 취약점으로는 환경, 에너지 절약 개혁과 혁신능력 부족, 농업기초의 취약, 도시와 농촌 간 소득분배 격차, 민생보장 부족 등
-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을 위한 장기 목표 제시
 - 종합국력을 크게 상승시키고, 경제총량을 새로운 단계로 크게 올리며, 핵심기술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루어 혁신형 국가의 선두그룹에 위치
 - 아울러 현대화 경제체제 수립, 국가운영체제와 능력의 현대화, 법치국가 건설, 문화강국,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 등 제시
 - 1인당 국민 소득을 2035년까지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중산층을 확대하여, 지역 간 발전 불균형, 도농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
 - 국방과 군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

다.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 계획의 목표

-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 필요
 -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개선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충만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를 기본적으로 형성
 - 이외에도 문화, 생태환경, 민생문제, 국정운영체제 개선, 국방과 군 현대화를 위한 노력 등 언급
 -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것으로서 총체적 국가안보에 대해 언급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응급대응 능력 제고를 포함
-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 중 특기할 만한 내용

- 혁신은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있어서 핵심이며,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이 국가발전 전략에서의 지주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강조
-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 새로운 발전의 형세를 만들자면서, 내수확대전략을 기본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병행, 국내대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을 촉진시켜, 소비를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투자공간을 넓힐 것을 제시
- 개혁을 심화시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 효율적인 시장과 정부가 잘 결합되도록 추진
- 방대한 중국 시장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며, 일대일로의 질적인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 개혁에 적극 참여
- 시진핑 강군사상과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여 국방과 군의 현대화를 가속하고, 국가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 능력을 제고

3. 관찰

가.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

- GDP 성장의 목표 수치
 -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목표 수치는 관례에 따라 추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 다만 GDP 연간 성장률 목표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제반 불확실성을 감안, 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 (만약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면 5% 내외가 될 것으로 일부에서는 전망)
 - 2015년 5중전회에서는 2020년의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만들겠다는 것을 먼저 공개하고, 이어 연간 성장률 목표는 6.5% 이상이라고 발표 (시진핑은 당시 보고에서 실제로는 7% 전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
- 국내수요 확대에 중점을 둔 국내 국제 쌍순환 경제정책의 추진
 - 내수확대의 필요성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시부터 거론, 2015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진핑의 New Normal에서도 강조되었던 것

- 단,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미국의 디커플링 움직임 등 경제환경의 큰 변화에 대비한 경제전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성 인식
 - 특히 국내 대순환 경제정책은 광대한 중국시장을 배경으로 중국 내부에 공급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지역 가치 사슬(RVC)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으로 해석 가능
 - 따라서 쌍순환 경제정책의 추진은 시진핑 시대의 대표적 경제발전전략 즉 '시코노믹스'의 핵심으로 향후 이러한 경제전략이 성공을 거둔다면, 중국식 발전모델의 중심 내용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
 - 다만, 해외수요 감소에 대체할 만한 국내수요가 어느 정도 증대될것인지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 도농간 소득 불균형 완화, 국영기업과 국가에 편중된 부의 재분배 등의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
- 2035년 장기목표 중 개혁, 개방과 더불어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과학과 산업기술에서의 혁신과 자립을 강조
 - 2015년 18기 5중전회에서도 혁신을 앞에 내세우긴 하였으나, 이번 19기 5중전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이 국가발전 전략의 지주라고 언급하면서 혁신과 자립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
 - 중국 내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와 대외무역환경의 악화에 대비한다는 측면
 - 특히 중국은 미중경쟁의 핵심이 기술 경쟁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기술굴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중시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과 장점 부각, 향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명확화

나. 중국의 국내정치

- 시진핑의 강력한 권력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
 - 많은 전문가들은 19기 5중 전회가 정치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부에서는 노선투쟁의 심화 가능성까지도 예측
 - 그러나 공보 내용으로만 보면, 현 시점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국면이자 지난 백 년의

세계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변화의 국면'이라고 평가하며 '전략적으로 힘을 집중하자'며 당의 단합을 강조

- 5중대회 공보는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 '집중통일 영도(集中统一领导)'라는 개념을 여전히 사용
 - "조타수"라는 시진핑에 대한 수식어 사용 ("领航掌舵"는 마오 이후에는 2018년에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조타수라는 표현으로 등장, 이번 5중대회 발표문에서 "전체 당의 핵심 조타수"라고 기술)
 - 10월 30일 5중대회 결과 설명을 위한 언론 발표회에서, 관계자는 금년 3월 시진핑을 조장으로 리커창, 왕후닝, 한정을 부조장으로 하는 문건 기초조가 구성되어 동 "건의"를 작성했다면서도 이번 5개년 계획 건의는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지도하고, 시진핑의 중요 발언과 지시 등이 반영되어 제정된 것임을 강조
- 이번 19기 5중대회 이후 알려진 주요인사 변동은 전무
 - 과거의 5중대회에서는 크고 작은 인사 변동이 있었으며, 시진핑도 2010년 17기 5중대회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차기 최고지도자로 확정
 - 그러나 아직까지 차세대 지도자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한 인물도 없는 상태였고, 이번 5중대회에서도 변화 전무
 - 유일한 인사 변동은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을 맡고 있던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직무를 부주임이던 장진취안(江金權)에게 넘겨준 것
 - 왕후닝은 2022년 20차 당대회에 67세가 되는 만큼 중앙정책연구실부주임 장진취안의 주임 직 승계는 자연스러운 인수인계로 평가됨
 - 따라서 시진핑이 적어도 2027년 21차 당 대회까지는 집권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 집권할 가능성도 존재
 - 지도자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5개년 계획 작성에는 정해진 후계자와 함께하는 것이 관례(2010년의 12차 5개년 계획 작성시 후진타오와 더불어 당시 후계자인 시진핑 참여)
 - 이번에는 시진핑 주도로 추가된 중국의 꿈 달성 중간목표 년도인 2035년까지의 장기 정책 목표를 시진핑 주도로 제시
 -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관련, 중국 공산당의 당주석 부활 문제는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더 관찰할 필요

다. 대외관계와 관련된 몇 가지 관찰

- 이번 발표문에 미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나,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중국의 발전에 대한 위협적 요소라고 보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
 - 과학과 산업기술의 혁신, 광대한 중국시장 언급, 내수의 확대, 자주성(자급자족) 강조
 - 2015년 5중전회 발표문과는 달리 국방과 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을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기술
 - 미국 등 서방세계가 경계하는 '중국제조 2025'나 인터넷 플러스 등 구체적 프로젝트 들은 발표문에서 배제

-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불편한 현재의 상황을 반영
 - 2015년 발표에는 대만과의 양안 경제협력과 홍콩, 마카오 지역의 민주, 민생개선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이번에는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는 장기적 번영 및 안정을,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통일을 언급

- 이번 5중전회 발표내용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보다는 중국 자신의 부국강병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
 - 2015년 5중전회 발표문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논의에 주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술
 - 그러나, 이번 발표문에서는 일대일로를 통해 새로운 세계 경제 거버넌스 체제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한다는 정도로만 간략히 언급